

미국 북서부 항만, 선박에 항만보안료 부과

내년부터 선박 1척당 1일 250~600\$ 수준

미국 태평양 지역의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등에 있는 13개 항만 터미널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북서부 항만 터미널 협회는 보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박 1척당 하루에 25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의 항만 보안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항만 보안료는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개별 항만에서 정한 요율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항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서부 항만들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항만 보안기준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걸프 지역이나 남대서양 및 플로리다 지역의 항만 협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만보안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일부 미국 북서부 항만들의 경우 연방 보안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받고 있으나, 이같은 금액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보안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보안료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두바이포트월드, P&O 33억파운드에 매수 합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항만관리회사 두바이 포트 월드(DPW : Dubai Port World)는 11월29일 영국 터미널 운영회사인 P&O를 33억2,600만 파운드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매수로 허치슨, PSA에 뒤이은 거대 터미널 운영회사가 탄생한다.

DPW은 주식당 443파운드(10월27일 주가에 46%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를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매수의 현안이었던 페리 부문도 포함되어 경

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P&O는 본사를 최저 1년간 런던에 두고, 로버트 우즈(Robert Woods)가 CEO를 유임할 예정이고, 런던 게이트웨이 계획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양 회사의 시설은 30개국 51개 터미널에 다다르고, 컨테이너의 최대 처리능력은 5,000만 TEU가 된다.

양측의 거래는 내년 1월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